문서관리번호	2025-S-11
최초 제정일	2025.05.27
최신 개정일	2025.08.29
문서 관리자	공급망지속경영팀

현대자동차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2025. 08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1.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목적 및 범위 3
가. 정책 목적 3
나. 적용 범위 3
2. 일반 원칙 4
가. 실사 체계 구축 4
나. 관리사항 4
다. 이해관계자 참여 5
라. 관련 정책 5
3.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6
가. 리스크 진단 6
나. 서면평가 6
다. 현장실사 6
라. 개선조치 7
마. 모니터링 7
4. 지원 및 교육 9
5. 구매 의사결정과의 통합 9
6. 기록 관리 및 공시 10
가. 문서화 및 내부 보고 10
나. 대외 공시 10
7. 고충 처리 10
가. 고충 식별 및 처리 10
나. 대표 고충 처리 채널 11

1.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목적 및 범위

가. 정책 목적

현대자동차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현대자동차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의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분야에서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SO 20400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식별, 평가, 예방, 완화, 모니터링, 공시하는 책임 있는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본 정책은 경영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한다.

나.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현대자동차 국내외 사업장(본사, 지역본부, 판매법인 및 생산법인, 서비스센터 및 출고센터) 및 자회사와 현대자동차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차량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해당 국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본 정책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독일 공급망 실사의무법(LkSG)」,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UN 글로벌 콤팩트 10 대 원칙(UNGC),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K-ESG 가이드라인 등 각국의 법령/규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에서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 일반 원칙

가. 실사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책임 및 환경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한다.

현대자동차는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부 책임을 수행하며, 모든 실사 활동은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GPs 및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거로 하고,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및 경영회의체를 통한 감독 하에 실행한다.

i.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리스크 식별·평가, 예방·완화, 시정, 모니터링 및 공개를 포함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ii. 내부 실행 조직 구성: 실사 전담 부서 지정 및 경영진 감독 하에 운영

iii. 정기적 리스크 분석: 필요 시 재분석 실시

iv. 예방·시정 조치 수립 및 이행: 심각도·가능성 기반 우선순위 설정

v. 자사 및 공급업체 대상의 예방 및 시정 조치 수립

vi. 이해관계자 참여: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소통 채널 확보

vii. 정보공개: ESG 정보공개 요구사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이행

나. 관리사항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진단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이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i.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기오염물질, 수자원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

ii. 윤리: 부패, 뇌물수수 금지, 윤리경영, 책임 있는 조달, 위조부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보안 등

iii. 인권·노동: 근로조건 및 환경, 차별금지, 비인도적 행위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생활임금 보장 등

iv. 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산업재해 방지, 적절한 주거, 산업안전보건 지표 관리

다.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한다. 이들의 참여를 공급망 실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하며, 실사 전 과정에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특히,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활동 과정에서 여성, 원주민, 소수자 및 기타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원재료 추출 및 가공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 동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i.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ii.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보 수집

iii.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시정 조치 계획 수립

iv.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실행

라. 관련 정책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자회사,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모든 개인, 조직 및 이해관계자가 본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실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이행하며,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내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한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다음을 포함한 현대자동차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계약상 의무로써 요구한다:

i. 「협력사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

ii. 「책임광물 정책(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Policy)」

iii.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Responsible Raw Material Sourcing Policy)」

3.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2차 협력사 또한 파악하고 있으며, 2차 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여 매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구매본부는 해당 서면평가 결과 및 리스크 맵핑을 통해 확인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고위험 협력사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또한, ESG 실사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평가, 분석하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구조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사 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실사 결과는 경영진의 의견 등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과 실행 조치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실사결과를 구매정책에 반영 및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강화 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가. 리스크 진단

공급망 내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업차원의 요인, 사업 운영, 국가 및 지리적 요인, 납품 중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요인, 관련 산업 요인 등을 고려하여 ESG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공급망 관련 기관정보 및 미디어 리서치를 활용한다. 식별된 리스크는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등 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면평가 지표 등 정량·정성 기반의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한다.

나. 서면평가

협력사 행동규범 및 관계법령에 대한 협력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 내역, 기타 거래 문서 또는 정보 및 자료 등을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는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공정거래, 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을 고려해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평가 지표를 구성해 활용한다.

현대자동차가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는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에 한하며, 협력사는 현대자동차에게 그러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할 시 이러한 준수와 관계없는 기술 또는 가격 정보 및 자료는 제외한 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위 요청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관계법령 및 현대자동차 규정 준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협력사 서면평가 결과는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급망 운영 전략에 반영한다.

다.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서면평가 후 현장실사 등 감사를 실시한다. 협력사의 소재 국가, 업종, 납입 부품·원부자재, 서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한다. 특히, 서면평가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현장실사는 ESG 컨설팅 및 진단·실사 전문가 등 제3자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현대자동차 구매 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행동규범 및 관계 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한다.

라. 개선조치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다양한 ESG 리스크에 대해 동시에 모든 사안을 동등하게 예방·완화·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리스크의 심각도(Severity)와 발생 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부여 체계를 운영한다. 서면평가 응답 결과 및 현장실사 등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는, 사전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중요 이슈와 공급망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대응 역량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가장 중대한 리스크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특히 사업장, 자회사, 직접 협력사 등에서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예방 및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i. 부정적 영향의 심각도

ii.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iii. 조치 이행을 위한 자원 활용 가능성

iv. 산업 특성과 거래 관계의 구조적 특성

마.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점검 및 실사 결과는 업체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와의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중단할 수 있다. 식별된 리스크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대자동차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더불어, 우선순위화된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제거, 완화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협력사와 함께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예방행동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i.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일정

ii. 질적 및 양적 성과지표

iii. 필요한 재정적·비재정적 투자 및 인프라 개선

iv. 구매 관행, 설계, 유통 등 사업 전략 및 운영계획의 조정

실제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침해가 발생했거나 식별된 경우, 현대자동차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수립·이행하여 해당 영향을 종결하거나 최소화한다. 시정 조치는 영향의 심각도, 공급망 내 발생 주체의 관여 정도 및 현대자동차의 영향력을 고려해 비례적으로 마련되며,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i. 명확한 실행 일정

ii. 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양적 지표

iii.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

iv. 전략 및 운영 방식의 개선 사항 등

4. 지원 및 교육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사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ESG 교육, 맞춤형 컨설팅,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등 주요 정책 및 실천 사례를 협력사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 소식지를 통해 소통한다.
(참조: 현대자동차 동반성장 포털)

5. 구매 의사결정과의 통합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ESG 기준을 구매정책 전반에 통합하고, 협력사 선정 및 거래 관계에 반영한다. 신규 협력사 선정 시에는 품질, 재무 건전성, 경영역량에 더해 지속가능성, 안전, 보안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계약 체결 여부 및 향후 거래 조건에 반영한다. 기준 점수 미달 시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협력사 또한 ESG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 안전·환경 사고 현황 점검 등을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서는 구매정책 상 입찰 제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구매계약 체결 시 확인하고, 협력사에 요구되는 ESG 사항과 구매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 행동규범과 구매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한다.

6. 기록 관리 및 공시

가. 문서화 및 내부 보고

현대자동차는 실사 의무 이행 과정에서 수행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한 모든 문서를 관련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문서의 생성 또는 수집일로부터 최소 5년 또는 글로벌 규제 및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 기간 보관한다. 운영 전반, 자회사,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리스크 분석 결과 등 주요 내용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향후 정책 개선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나. 대외 공시

명시된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실사 절차 및 그 결과 전반을 매년 공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보고서에는 현대자동차의 사업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이슈가 현대자동차의 재무적 성과, 사업 운영 및 사회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7. 고충 처리

가. 고충 식별 및 처리

현대자동차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 위반 또는 환경 리스크 등 공급망 관련 고충사항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임직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협력사로부터 고충이 접수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접수자에게 세부 조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 세부 조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며, 필요 시 공급망 관리정책에 반영된다. 또한, 중대한 법/규제 위반이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등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영회의체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각 고충 사건의 종결 이후, 고충 처리 결과는 최소 5년 또는 글로벌 규제 및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 기간 보관한다.

나. 대표 고충 처리 채널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고충 처리 절차를 시행한다. 보복 금지, 고충 접수자 신원 비밀 보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통지 등의 원칙은 고충 처리 채널 정책에 명시한다.

대표 신고 채널

- [국내/해외] 공급망지속경영팀 - 고충접수 (상생협력실천센터 → 공급망 지속경영센터 → 고충접수) (https://winwin23.hyundai.com/)
- [국내] 구매기획팀 - 투명구매신고센터 (동반성장 문화정착 → 동반성장 문화 조성→ 투명구매신고센터바로가기) (http://winwin.hyundai.com/coportal/system/clean.html)
- [국내/해외] 감사기획팀 - 사이버 감사실 (https://audit.hyundai.com/)